

■ 현장리포트

“연패중인 감독 마음이야...”
김경문의 ‘동업자 공감’

기분 좋은 창단 첫 승에 강호 SK를 상대로 첫 연승과 위닝 시리즈까지 신고했다. 16일 대전구장에 도착한 NC 선수단 전체에는 웃음과 활력이 가득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김경문 감독(사진)은 조금 무거운 표정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덕아웃으로 돌아와 감독에게 인사하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7연패 와중에도 선수들에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좋아~, 좋아~, 더 힘차게”를 외쳤던 김 감독이다.

김 감독은 취재진에게 “감독님(김응룡 한화 감독) 덕아웃에 혹시 나오셨나?”고 물은 뒤 ‘보지 못했다’는 답을 듣자 “김성한 코치에게 대신 인사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잠시 후 NC 덕아웃으로 돌아온 김 감독은 “연패 중인 감독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신생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생각하는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부담이 덜하기도 하지만 연패 중에는 마음이 아팠다”며 “(두산 사령탑이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다녀온 뒤 9연패를 했었다. 그때 하늘로 떠난 인기스타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그만큼 연패는 감독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한화가 겪고 있는 아픔에 동업자로서 공감을 표한 것이다.

연패 탈출을 위한 한화 선수단의 안간힘은 이날도 안쓰러울 정도였다. 휴식일도 반납한 채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던 한화 선수단은 이날 NC전을 앞두고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 훈련을 마쳤다. 경기 중에는 코칭스태프가 타자와 투수의 수싸움을 하나하나에까지 개입하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동원됐다. 김성한 한화 수석코치는 “선두타자가 볼넷으로 걸려 나가 무사 1루 찬스가 와도, 다음 타자가 초구를 때려 병살로 아웃되는 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처음에는 황당할 뿐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실력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LG와 경기(12~14일)부터 상황에 따라 공을 기다려야 할지, 공략해야 할지 사인을 내기 시작했다. 타자들이 너무 조금하다. 창의력을 막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한화 첫승 쏜 승부사 김태균



지독한 기다림이었다. ‘캡틴’ 김태균의 무게감이 한화의 13연패 사슬을 부렸다. 김태균은 홈런과 2루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공격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김태균이 5회말 1사 1루서 타격을 하고 있다.
대전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스타 플러스

끌려가던 NC전 추격 2타점·역전 결승 투런포 끝 보이지 않던 한화 13연패 사슬 드디어 싹둑
첫승 기다린 6500여 대전 관중들 뜨거운 환호

16일 대전구장. 1회가 끝나자 전광판에는 ‘NC 3-0 한화’가 선명했다. 프로 야구 선수들은 ‘10연패가 넘어가면 5회에 5-0으로 이기고 있어도 꼭 질 것 같다’고 말한다.

13연패, 그것도 개막 이후 단 한번도 이기지 못한 한화는 신생팀 NC에게도 1회 3점이나 먼저 허용했다. 2회초 NC는 1점을 더 추가했다. 스코어는 4-0. 한화 선발 바티스타는 3~4회 5연속타자 삼진을 잡는 등 연패를 끊기 위해 역투했지만 그라운드와 관중석에는 이미 13을 넘어 14라는 숫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한화에 첫 찬스가 온 것은 3회말. 오선진이 2루수 실책, 김태완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2사 1-2루 찬스가 4번타자 김태균 앞에 놓였다. NC 선발 에릭은 김태균에게 결정구인 컷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며 맞섰다. 김태균은 커트를 해가며 6구까지 맞섰다. 그리고 7구째 몸쪽 높은 코스로 커브가 들어오자, 망설임 없이 배트를 휘둘러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뽑았다. 외야 펜스가 확장되기 전인 지난해였다면 홈런이 됐을 법한 큰 타구였다. 골장 최진행이 중전적시타를 날리자, 김태균은 홈까지 역주해 3-4, 턱 밑까지 추격하는 팀의 3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3-4로 따라갔지만 어느덧 5회초가 끝났다. 평소라면 오히려 쫓기는 팀이 더 불안한 점수였지만, 연패 중인 한화 선수들이 받는 중압감은 훨씬 컸다. 특히 이날 5.2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은 바티스타의 투구수가 100개에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 5회말에 역전하지 못하면, NC 불펜의 필승요원들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데다 바티스타의 다음 투수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패를 끊느냐, 아니면 14연패로 추락하느냐의 갈림길.

5회말 1사 후 김태완이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타석에 선 김태균에게 에릭은 3회가 떠올랐는지, 커브가 아닌 컷패스트볼과 슬라이더만으로 맞섰다. 그리고 1B-2S로 볼리했던 볼카운트에서 에릭의 5구째 컷패스트볼이 몸쪽 높은 코스로 들어왔다. 김태균은 팔을 바짝 붙여 끝까지 품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스윙을 했다. 타구는 골장 왼쪽 담장 너머로 날아갔다. 김태균의 역전 결승 2점홈런. 순간 대전구장의 6500여 관중은 뜨겁게 환호했다. 김태균에게는 시즌 1호 아치이자, 올 시즌 대전구장의 외야 펜스가 확장된 뒤 처음으로 한화 타자가 기록한 의미 있는 한방이었다. 결국 한화는 6-4로 승리해 길고 긴 연패의 터널에서 벗어났다.

대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한화 김태균=홈런 칠 때는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동안 선수들이 주장 잘 못 만나서 계속 패한 것 같아 미안했다. 마지막 9회초에 이대수 선배가 플레이를 잡는 순간 조금 울컥했다. 답답한 마음이 땀 뚝리는 것 같다.

8월 8색 UP & DOWN (16일) 대전 구장

NC
2013년 한화에 처음으로 패한 팀.
한국프로야구 위해 또 한번 큰 일 한
아기공룡

한화
가까스로 13연패 탈출, 막내(NC)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SK
조조가 먹고, 최정이치고! 어중간
한 열 아들이 안 부러운 똑똑한 아들
2명

삼성
선발투수 시험대에서 시소 타는 차우
찬.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사직 구장
롯데 불펜과 수비가 정성껏 만들어
준 보약 먹고 되살아난 타격감

롯데
대체 한화와 NC가 아닌 팀에 첫 승
은 언제쯤?

광주 구장
지난주 NC·한화 상대로 5승(1패)이
나 했었는데... 이제 거품 빠지는 건
가?

KIA
휴식이 보약이라더니... 다시 기운
차린 호랑이!

영성한 캐치...한화의 자승자박

한화는 16일 대전 NC전에 에이스 바티스타를 선발로 내세우며 연패 탈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회초 시작과 함께 영성한 외야 수비로 실점하며 초반 흐름을 빼앗기고 말았다.

볼넷과 안타, 내야땅볼 등으로 1점을 내준 뒤 이어진 2사 2루서 NC 권회동의 타구는 크게 포물선을 그리며 외야로 향했다. 한화 좌익수 정현석은 느긋하게 공을 잡았다. 이날이 종료되려던 찰나. 그러나 정현석은 글러브를 내리며 오른 팔을 빼다가 그만 공을 놓쳐버렸다. 윤상원 3루심이 아직 아웃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 윤 심판은 공이 떨어지자마자 양팔을 수평으로 그으며 인플레이로 판정했다. 그 사이 2루주자 조영훈은 홈까지 들어왔고, 타자주자 권회동도 2루를 밟았다. 정현석이 공을 떨어트리는 시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 논란이 될 법했다. 넥스트 플레이로 간주해 정상적인 아웃으로 판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심판의 아웃 콜은 없었다. 또 2사 후였기에 정현석이 서둘러 공을 뺄 필요도 없었다.

정현석의 수비가 실책으로 기록되면서 추가 실점하자 한화 김성한 수석코치는 골장 심판들에게 항의했다. 한화 김응룡 감독은 항의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덕아웃 바로 옆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바티스타는 조평호에게 다시 2루타를 맞았다. 한화는 1회초부터 0-3으로 뒤지며 무겁게 출발했다.

대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치킨 창업

WellBeing Chicken 100% 한앤돌 치킨은 신선한 국내산 생닭만을 고집합니다.

새로운 컨셉을 만나야 성공한다!

한앤돌치킨은? 바삭바삭 후라이드 ~ 속살 촉촉 오븐구이 ~

고품격 Well-being 야채 숙성치킨과 담백한 오븐구이를 하나로!

품격있는 맛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더해 성공창업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창업문의 02.333.8555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사업설명회 : 매주 수요일 3시

창업체험 이벤트

“한앤돌치킨 매장에서 3일간
직접 체험해 보세요
교육비 면제 혜택과 본사지원
시식이벤트까지
한앤돌과 함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세요”

계약특전

- 교육비 면제
- 무이자 대출 최대 7천만원
- 오픈시 본사지원 시식이벤트

한앤돌치킨
www.onetwo.co.kr

검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